

최근에 본 것들

지난 주에는 영화 <검으나 땅에 희나 백성>을 보았다. 이 영화는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만 오래도록 듣다가 이제야 보게 되었다. 입양아인 주인공은 본인의 입양 전 고향이라고 추측되는 해천이라는 곳에 간다. 영화는 그가 그곳의 여관에 들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여관은 현재는 개축을 준비 중인데 그래서 많은 것들이 부서져 있다. 그 곳에는 수족관도 있는데 수족관의 물은 아주 맑고 붕어들은 힘들게 숨을 쉰다. 그 모습은 묘하게 생생해서 오히려 기운이 넘쳐 보이기도 한다. 붕어들은 힘이 들어서 배를 드러낸 채 혈떡이지만 그 모습은 마치 개구리가 팔짝 팔짝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영화 속 여관은 많은 것이 부서져 있지만 완전히 폐허 같은 모습은 아니고 오래된 다락 같은 느낌도 든다. 특히 주인 아들이 사는 방은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주인공이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낡은 침대와 보자기에 싸여있는 새장 그 안의 푸드덕거리는 새, 큰 창과 노란 조명 등을 보면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영화 속 여관이라는 공간도 그렇지만 여관을 점으로 해천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곳은 그런 곳이다, 라고 한 마디로 말하기 힘든 느낌이었다. 폐허 같기도 하고 다락 같기도 하며 고여있는 듯 하지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표정과 감정과 시간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해천이라는 곳은 분명 영화 속 장소이지만 그 장소를 보는 것으로 다양한 표정, 정서와 어찌서 그 표정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 그것은 어찌면 그 장소 안에서 쌓여있고 접혀있는 시간 같은 것 때문이겠지? 하는 생각이 이어지게 했다.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은 쓰는 동안은 늘 계속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는 면 것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영화였다. 하지만 이 영화가 어떤 답이었는지, 어떤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너무나 기능적이고 이해 가능한 결론처럼 여겨져 무언가 다르게 설명하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진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분명히 감독이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본인 안의 그림이 확고하고 장악력이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올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잘

계산되고 통제된 작품들은 어쩐지 사람들을 긴장되게 하고 숨 막히게 하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물인지 개울인지에 비친 지나가는 소는 물에 비친 소이므로 희미한데 그 희미한 소가 장면 안에서 아 정말 이렇게 생긴 소가 지나갈 것 같아 하는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잘 짜여진 배경 같지는 않은 것이다. 밤 중에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은 한복과 해천 읍내 거리의 가로등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물에 비친 소처럼 아 맞아 이런 색의 저고리여야 했을 것 같아 그래그래 그렇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화면과 다르게 그 이상의 어떤 묘한 정서를 관객에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하고 나면 그게 뭐? 그게 뭐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고민들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웬지 그게 아니야 그런 것은 잊어버려도 돼 싶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웬지 이 영화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미즈키 시게루의 만화『계계계의 기타로』를 읽고 있다. 번역된 이 분 작품은 앞서 말한『계계계의 기타로』와『농농할멈과 나』 이렇게 두 개다.『계계계의 기타로』는 전 7권인 만화인데 이 분의 대표작으로, 기타로라는 요괴 소년이 이런 저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착한 요괴들을 도와주고 나쁜 요괴들을 혼내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만화인 듯 하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권을 읽고 나면 웬지 힘이 들어 다음 권을 펼치기가 힘들다. 읽는 동안에도 한 권에 몇 번은 멈췄다가 다시 읽어야 한다.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등장인물들은 아주 귀엽고 정겨운데 기타로가 사는 숲속이든 아니면 요괴들과 싸우러 가는 저쪽 세계든 사람들과 만나는 도시든 배경이 엄청나게 박력이 있다. 특히 도시 보다는 숲이나 산 같은 곳이 더 압도적이다. 여름 한 낮의 숲 속 같은 데라도 되면 이파리 하나 하나가 박력이 넘치는 터치로 그려져 있고 용암이나 먹구름 또 어떤 편에서는 핵구름 같은 것이 요괴의 힘과 합해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종이 너머 독자에게 다른 어떤 식으로라도 이 괴로움과 힘을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도시는 그 보다는 보기 편하고 조금 쓸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의 배경이 좋은 것은 뭔가를 그냥 줌 하고 있다는 느낌도 함께 전달이 되어서 아닌가 싶다. 요괴만화 이니까 배경 같은 것이 남달라야 하는 것은 맞고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은 같은데 그렇지만 뭔가 이파리 같은 것을 구름 같은 것을 미친 것처럼 힘 있게 그리는 것을 좀 좋아하는 느낌인 것이다.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라거나 남국의 꽃이라든가 산의 검은 밤과 숲의 무성함 같은 것들을 그리는 것이 좀 좋고 그것에 자기도 모르게 마구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또 다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래서『계계계의 기타로』는 읽으면서도 계속 쉬다 다시 읽다 그리고 또 조금 쉬다를 반복해야만 했다. 아무튼

창작자가 어떤 식으로 배경을 장소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는 것은 힘이 되고 또 재미있는데 한편으로는 독자나 관객의 이런 생각들은 많은 경우 착각일 것도 같은데 훌륭한 작품은 착각을 착각에 대한 확신을 가끔은 반박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은 이 글에서 가정형으로 쓰지 않고 그렇다! 하고 글을 맺겠다.

